

한-케냐 인프라 협력센터

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2월 2~3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출처:trading economics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USD)	129	129	2026.02월
인플레이션(%)	4.4	4.5	2026.01월
CPI(points)	149	148	2026.01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65.5	72	2024.12월

○ 케냐 KES 1,361억 세수 부족 직면...재정 및 조세 징수 과제 부각)

- 케냐 정부는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KES 1,361억의 세수 부족을 기록하였으며, 이로 인해 추가 차입 없이 예산을 조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.
- 이러한 반복적인 목표 미달은 세수 동원 강화를 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세무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.
- 이번 세수 부족은 주요 프로그램 재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압박을 드러내며, 정부로 하여금 차입 확대 또는 지출 우선 순위 재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- 본 사안은 정부가 세입 목표, 경제 성장, 지출 수요 간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영상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함.

○ 케냐 재무부, 세수 대비 GDP 비율 하락으로 예산 압박 경고²⁾

- 국가재무부(National Treasury)는 케냐의 조세부담률(세수/GDP)이 약 14.4%로 하락했으며, 이는 2013~2014년 약 18%에서 낮아진 수준으로,

1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business/article/2001539783/blow-for-state-planning-as-revenues-fall-short-again-by-sh136/#google_vignette

2) <https://businesstoday.co.ke/national-treasury-tax-to-gdp-ratio-drop/>

-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함.
- 재무부는 이러한 하락의 원인으로 세금 불이행, 광범위한 세제 혜택 및 면제, 그리고 GDP의 약 22%를 차지하는 농업 등 주요 부문의 낮은 과세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음.
 - 증가하는 부채 상환 비용이 일반세수의 거의 절반을 소진하면서 개발 지출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, 개발 지출은 예산의 약 11% 수준으로 감소함.
 -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세율 인상보다는 정책 개혁, 납세 준수 제고, 디지털 집행 강화, 공공·민간 협력(PPP) 확대 등을 통해 세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.

② PPP 관련 동향

○ 콘자 테크노폴리스, 스마트시티 전력 공급 위한 PPP 기반 50MW 태양광 발전소 추진³⁾

- 콘자 테크노폴리스(Konza Technopolis)는 공공·민간 협력(PPP) 방식으로 50메가와트(MW)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여 스마트시티에 청정·경제적 전력을 공급하고 국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출 계획임.
- 본 사업의 개념안은 2025년 12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며, 국가재무부 PPP국에 제출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.
- 발전소는 태양복사량이 풍부한 카피티 평원(Kapiti Plains)에 위치할 계획으로,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에 적합함.
- 승인 이후 민간 투자자는 합의된 기간 동안 소비자 요금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며, 이는 재생에너지를 인프라에 통합하려는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중장기 전략과 부합함.

○ 음바디 재무장관 KES 5조 규모 국가인프라펀드(NIF) 민간 구조 기반 개발자금 동원 수단으로 명확화⁴⁾

- 재무부 장관 존 음바디(John Mbadi)는 제안된 KES 5조 규모의 국가 인프라펀드(NIF)가 전통적인 헌법상 공공기금이 아니라 「정부소유

3) 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konza-set-for-ppp-funded-50-megawatts-solar-plant-5347392#google_vignette

4) 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40148/mbadi-now-admits-sh5-trillion-infrastructure-fund-is-privately-owned#google_vignette

기업법(Government Owned Enterprises Act)」에 따른 정부 소유 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라고 설명함.

- 해당 기관은 아직 어떠한 공공자금도 수령하거나 지출한 바 없으며, 대형 인프라 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재원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함.
- NIF 설립은 2025년 12월 내각 승인을 받았으며, 상업적 지배구조를 허용하고 정부 예산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구조로 설계됨.
- 이는 해당 기금 설립이 헌법 및 공공재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제소가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, 재무부는 현재 절차가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의회의 감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전력 수요 증가·화력발전소 폐소로 설비용량 119.1MW 감소⁵⁾

- 케냐의 최대 전력설비용량은 지난 3년간 119.1MW 감소하였으며, 이는 고비용·고오염 에너지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Kipevu 1 및 Garissa Thermal 등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를 따른 것임.
- 그럼에도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최대 전력소비가 약 290MW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전력망의 여유 용량과 마진이 축소됨.
- 설비용량 감소와 함께 2025년 말까지 신규 전력구매계약(PPA) 동결로, 잠재적 전력 배급을 방지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로부터의 전력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.
- 당국은 적시에 신규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, 청정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케냐가 순전력 수입국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.

○ Nyayo Embakasi 주택사업 지연...NSSF 거버넌스 및 사업 집행 우려 제기⁶⁾

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peak-power-output-capacity-falls-by-119-1mw-5348554>

6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news/nssf-flagged-over-stalled-sh2bn-nyayo-embakasi-housing-project-5350484#story>

- 국가사회보장기금(NSSF)이 추진한 KES 20억 규모의 Nyayo Embakasi 6단계 주택사업이 당초 준공 예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연되며, 공사 지연 및 미완공 주택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해당 사업은 NSSF 주택공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백 세대의 주거 단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, 선납금 지급과 장기간의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중단되었고 완공된 주택은 소수에 그침.
- 비평가들은 NSSF의 프로젝트 관리와 투자 성과 전반에 대한 감사 및 감독기관의 문제 제기 속에서 이러한 지연을 지적하고 있음.
- 본 교착 상태는 가입자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의 집행 비효율성을 부각시키고 있음.

④ 정치 동향

○ 국회 재정위원회, 인프라 재원 마련 위한 KES 2,043억 규모 사파리콤 지분 매각 지지⁷⁾

- 국회 재정·국가계획 합동위원회는 약 KES 2,043억 규모의 사파리콤 PLC 정부 지분 일부 매각 제안을 승인하며, 재정 제약 완화와 핵심 인프라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로 평가함.
- 위원회는 현행 세입 배분 구조상 개발 재원이 최소임을 지적하면서, 정부 보유 지분 35% 중 15%를 보다콤(Vodacom)에 주당 KES 34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- 해당 매각안은 여러 카운티에서 공청회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, 법정 기한 내 국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됨.
- 매각 대금은 도로, 교통, 에너지, 수자원 등 주요 개발 우선 분야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, 정부는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해 지분 20%와 이사회 참여권을 유지할 계획임.

○ 미·중 경쟁 심화 속 케냐의 전략적 균형외교 강화⁸⁾

7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business/parliament-team-okays-sh204bn-safaricom-sale--5348754#story>

8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6-02-01-kenya-keeps-america-close-while-courting-china>

- 케냐는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.
- 케냐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과 나이로비에서 거의 동시에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였으며, 이는 양측 파트너로부터 경제·안보·인프라 분야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나이로비 정부의 의도를 반영함.
-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카운티 도로 사업을 위한 KES 372억 규모 자금과 판다본드(Panda Bond) 발행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며, 미국과의 협의에서는 안보 협력 및 케냐의 역내 핵심 거점국 역할이 강조됨.
- 이러한 접근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, 경쟁 심화에 따라 케냐가 외교적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워싱턴과 베이징 양측의 우려를 낳고 있음.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Mau Summit-Eldoret-Malaba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케냐국도청(KeNHA), 국가재무부 PPP국(National Treasury PPP Directorate)
- (도 급 사) 미정 - 사업은 현재 준비/예비타당성 단계이며, 2026년에 거래 자문사 선정 예정
- (사 업 비) 전체 도로 구간 기준 수십억 케냐실링 추정, 최종 비용은 타당성 조사 및 재무 모델링 완료 후 확정
- (편 당) 개발 파트너 지원 PPP 자금조달 계획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의 타당성 조사 지원 포함, 건설 및 운영 자금은 민간 자본 투입 예상
- (사업내용)
 - Mau Summit-Eldoret-Malaba 도로는 케냐 내륙과 우간다 국경, 그리고 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북부 회랑의 핵심 교통·물류 노선임.
 - 해당 회랑 업그레이드는 현대식 도로 기준의 2차선으로 설계되어 안전성 향상, 혼잡 완화, 중량 화물 운송 지원을 목표로 함.
 - 주요 준비 및 구조화 요소:
 - AIIB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: CPICS(캐나다) 및 Avatech Engineering(케냐) 주도로 약 4개월 소요, 기술·경제·환경·재무 측면 평가
 - 2026년 2분기: 상세 타당성 조사 및 거래 자문 서비스 조달 계획
 - 이후 PPP 경쟁 입찰, 2026년 3분기 자격요건(RFQ), 2027년 1분기 제안서(RFP) 예정
 - 2027년 중반: 최종 PPP 법률·상업 계약 체결 후 선정된 민간 파트너가 설계·재원 조달·건설·운영·유지관리(DBFOMT) 수행
 - 본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핵심 회랑의 혼잡 완화, 케냐 서부 핵심 지역과 우간다 국경 간 이동 시간 단축, 지역 간 무역 및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설계됨.
- (추진현황)
 - 2025년 말: 다자개발금융협력센터(MCDF)에서 315만 달러(KES 4억 860만) 규모의 보조금 승인, 마우 서밋-말라바 회랑의 타당성 및 준비 조사 자금 지원
 - 2026년 초: 정부(PPP 총괄부서 및 KeNHA) 주도로 AIIB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초기 사업 활동 개시, 상세 거래 자문사 선정 절차 착수
 - 2026년 계획: 상세 타당성 조사 및 거래 자문 서비스 조달 예정, 2분기 중 자문사 임명 목표. PPP 파트너 선정 RFQ는 3분기, RFP는 2027년 1분기 예정, PPP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

9) <https://www.kenyans.co.ke/news/120478-kenya-and-aiib-partner-landmark-mau-summit-malaba-road-project>

- 2027년 중반 목표: PPP 계약 서명 예정, 선정 민간 파트너가 설계, 자원 조달, 건설 단계 착수 (법정 승인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)

○ (주요상황)

- 외부 보조금 지원과 AIIB, MCDF 등 개발 파트너 자금으로 진행되는 공식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준비 및 구조화가 본격화됨.
- 정부는 PPP 방식을 활용하여 민간 자본과 재무제표 외 자금 조달을 추진할 계획이며, 이는 대규모 도로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부합함.
- 회랑 업그레이드는 무역 촉진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며, 나이로비-서부 케냐-우간다 간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.
- 현재 준비 단계는 기술적, 경제적, 환경적,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 집중하고 있으며, 거래 자문 서비스를 통해 PPP 구조 및 상업 조건을 설계할 예정임.

2 협력센터 운영 보고

- 해당사항 없음